

# “가만히 있으라”



연금연구회 13차 세미나 - 박준영

# 누가 현실인가?

<표 6> 민감도분석 결과(조합시나리오)

(단위: %)

시나리오	적립기금		노인부양비 <sup>1)</sup>			부과방식비용률			GDP대비급여지출		
	수지적자	기금소진	'60년	'70년	'93년	'60년	'70년	'93년	'60년	'70년	'93년
기본가정(중위중립)	2041년	2055년 (-47조)	94.2	104.4	92.8	29.8	33.4	29.7	7.7	8.8	8.8
조합시나리오	저위중립	2041년 2055년 (-132조)	99.9	115.0	112.2	32.6	38.6	37.6	8.2	9.7	10.6
	고위중립	2041년 2056년 (-209조)	89.0	95.9	82.2	27.3	29.5	25.2	7.3	8.1	7.7
	중위낙관	2042년 2056년 (-259조)	94.2	104.4	92.8	28.0	31.2	27.4	7.2	8.2	8.0
	중위비관	2040년 2055년 (-121조)	94.2	104.4	92.8	32.0	36.0	32.2	8.3	9.6	9.6
	초저출산율	2041년 2055년 (-207조)	108.5	129.1	비공개	34.3	42.0	42.1	8.3	10.0	11.2
	출산율 OECD 평균	2041년 2055년 (-14조)	90.6	96.5		28.7	31.1	25.3	7.6	8.5	7.9

주 : 1)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5차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본 가정’ 하에서는 2055년부터 기금이 47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엔 출산율 1.2 반등, 마이너스 성장의 부재, 기금수익률 4.5% 유지,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이라는 ‘중립적인 기본 가정’ 하에서 해당된다. 정말 이것이 ‘중립적이고 기본적인’ 현실인게 말이 될까?

그래도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

<표 4> 조합시나리오의 인구변동요인

구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저위	합계출산율(명)	0.68	0.77	0.95	1.02		
	기대수명(세)	83.8	84.7	86.3	87.6	88.8	89.8
	국제순이동(천명)	-20	-15	-11	-12	-11	-11
중위(기본가정)	합계출산율(명)	0.73	0.96	1.19	1.21		
	기대수명(세)	84.3	85.7	87.4	88.9	90.1	91.2
	국제순이동(천명)	43	46	46	43	43	40
고위	합계출산율(명)	0.88	1.16	1.39	1.40		
	기대수명(세)	84.8	86.6	88.5	90.1	91.2	92.3
	국제순이동(천명)	107	108	106	101	100	96
초저출산율(코로나19 장기영향)	합계출산율(명)	0.62	0.64	0.89	0.98		
	기대수명(세)	84.3	85.7	87.4	88.9	90.1	91.2
	국제순이동(천명)	-24	31	33	29	27	25
출산율 OECD 평균	합계출산율(명)	비공개(통계청)			1.61('53~)		
	기대수명(세)	84.3	85.7	87.4	88.9	90.1	91.2
	국제순이동(천명)	43	45	45	41	40	37

<표 5> 조합시나리오의 경제변수 가정

(단위 : %)

인구	경제	경제변수	'23~'30	'31~'40	'41~'50	'51~'60	'61~'70	'71~'80	기간평균
저위		실질경제성장률	1.8	1.2	0.4	0.0	-0.3	-0.5	0.2
		실질임금상승률	2.0	2.0	1.9	1.8	1.7	1.6	1.8
		실질금리	1.4	1.4	1.3	1.2	1.1	1.1	1.2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중위	비관	실질경제성장률	1.5	0.9	0.2	0.0	-0.3	-0.3	0.2
		실질임금상승률	1.5	1.4	1.3	1.2	1.1	1.1	1.2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중립(기본가정)	실질경제성장률	1.9	1.3	0.7	0.4	0.2	0.2	0.7
		실질임금상승률	1.9	1.9	1.8	1.7	1.6	1.6	1.7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낙관	실질경제성장률	2.4	1.8	1.1	0.9	0.7	0.6	1.1	
	실질임금상승률	2.4	2.4	2.3	2.2	2.1	2.1	2.2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고위		실질경제성장률	2.0	1.5	0.9	0.8	0.6	0.7	1.0
		실질임금상승률	1.9	1.8	1.8	1.6	1.6	1.6	1.7
		실질금리	1.4	1.4	1.3	1.3	1.3	1.3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초저출산율(코로나19 장기영향)		실질경제성장률	1.9	1.3	0.5	0.0	-0.4	-0.6	0.2
		실질임금상승률	2.0	1.9	1.9	1.7	1.6	1.5	1.7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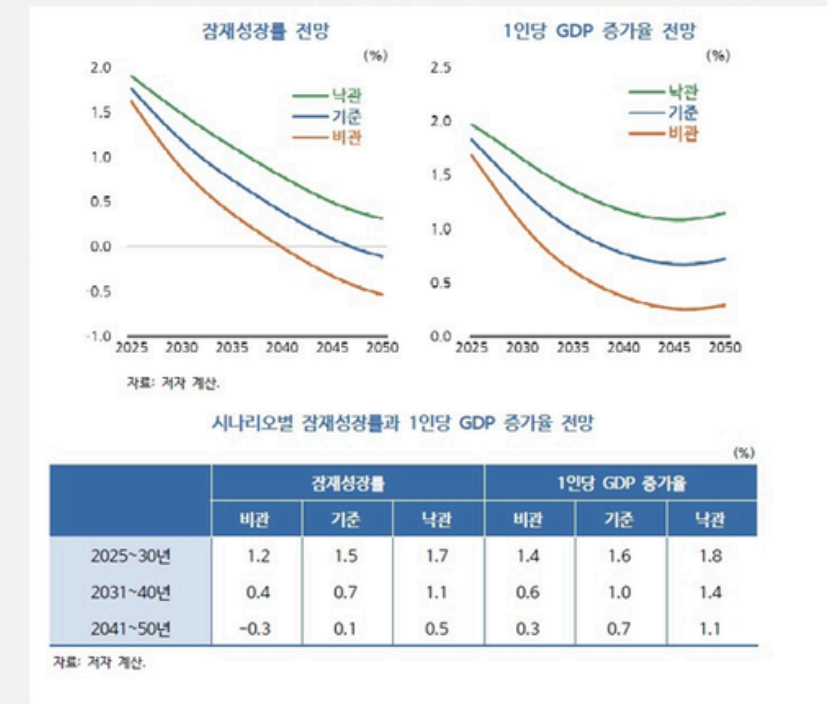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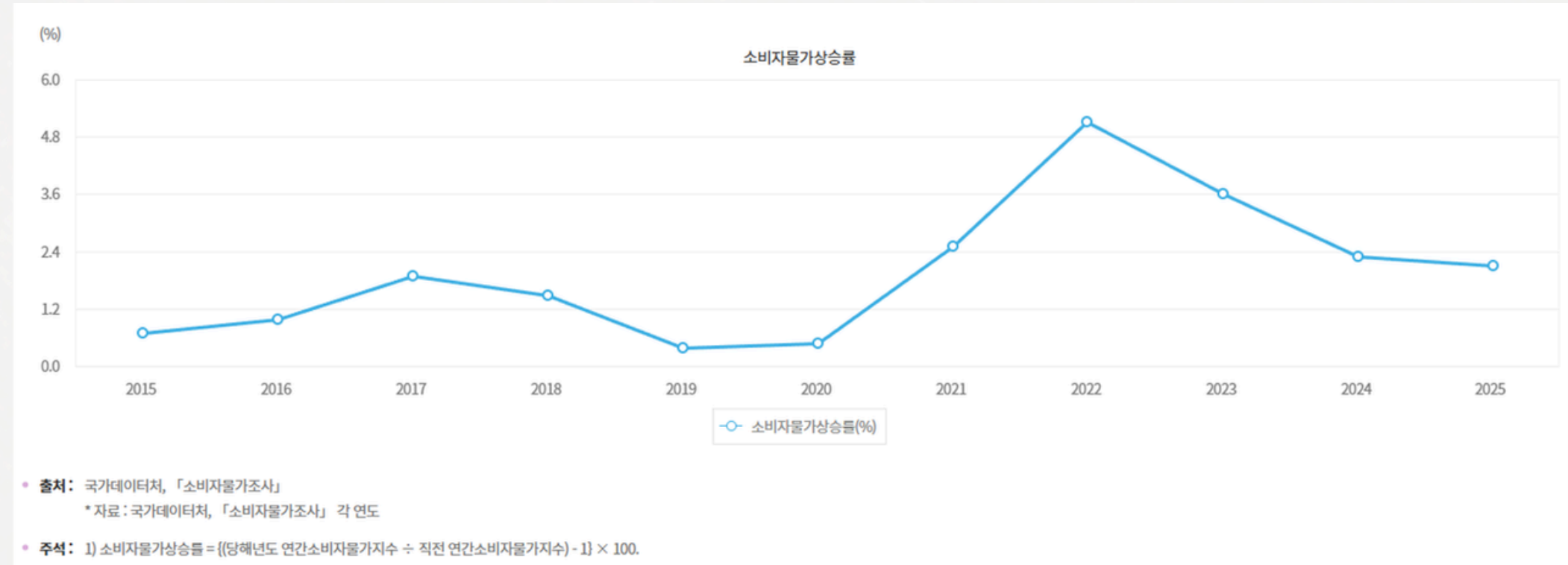
# 누가 현실인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기후 위기로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아주 미약하게 반등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경제성장률은 비관적으로는 이미 2040년에 역성장한다.

이래도 사실을 말하면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이 된다.

그래도 괜찮다!

## “가만히 있으라.”



#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부표 1〉 현행제도, 2024년 9월 정부 발표 개혁안, 2025년 국회 통과 개혁안의 세대별 순혜택 비교

(단위: 조원, 억원)

전체 가입자	현행 제도			2024년 9월 정부 발표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세대별 차등화된 13% 보험료율 인상 42% 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0.5%p 씩 인상하여 2033년 13%까지 보험료율 인상 43% 소득대체율				
	세대별 순혜택	수익비	1인당 순혜택 (a)	세대별 순혜택	수익비	1인당 순혜택 (b)	증감율 (b-a)/a	세대별 순혜택	수익비	1인당 순혜택 (c)	증감율 (c-a)/a
2000~2009년	486.5	2.18	1.23	370.6	1.64	0.93	-24.4%	380.6	1.65	0.96	-22.0%
1990~1999년	621.1	2.17	1.13	515.6	1.75	0.94	-16.8%	531.5	1.76	0.97	-14.6%
1980~1989년	548.9	2.16	1.00	491.2	1.86	0.89	-11.0%	513.5	1.90	0.93	-7.1%
1970~1979년	462.9	1.98	0.79	439.9	1.85	0.75	-6.3%	464.6	1.92	0.80	-0.4%
1960~1969년	289.9	1.73	0.57	289.5	1.72	0.57	0.0%	292.7	1.73	0.57	0.4%
1950~1959년	152.2	1.71	0.40	152.2	1.71	0.40	0.0%	152.2	1.71	0.40	0.0%

주: 1. 순혜택 및 수익비는 출생연도의 구간 내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2. 1인당 금액은 각 출생연도별 59세 국민연금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3. 현재가치 할인 기준은 금리를 적용하였으며, 금리는 회사채 3년 만기 AA- 수익률의 실적치 및 전망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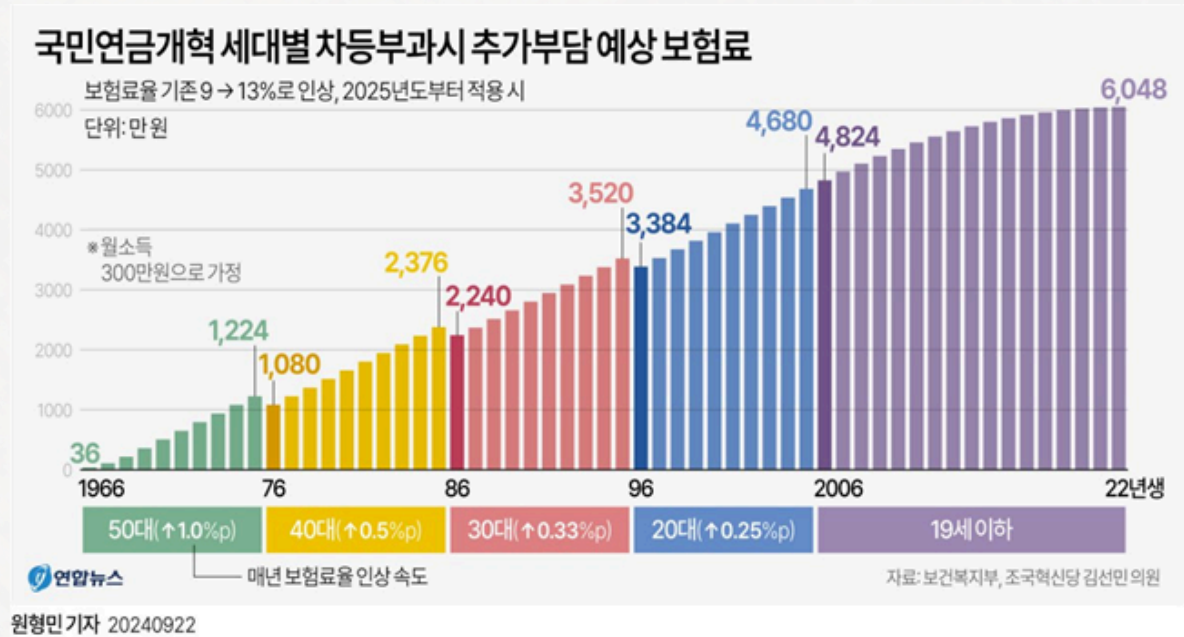
한국재정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2000~2009년생의 수익비는 22%가 감소했고, 1960~1969년생의 수익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고도성장과 부동산 펌핑을 모두 누린 그들은 역시 손해를 보지 않는 귀재다.

그래도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

#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형평성을 위해 차등인상안도 나왔지만 보기 좋게 무시당했다.

그들은 5년~10년 정도만 13%를 내면 되지만,  
우리는 3~40년동안 13%를 꼬박꼬박 내야만 한다.  
우리 아래, 우리 자식 세대는 또 얼마를 내야 할까.

내가 좀 덜 받아도 좋으니 내 자식 한 푼이라도  
더 주고싶은 마음에 자동조절장치라도 넣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무시당했다.

## 보험료율 인상 세대별로 차등안

현행 9%에서 50대 연 +1%p 인상 기준  
→ 40대 +0.5%p 30대 +0.33%p 20대 +0.25%p



자료: 정부

24.09.04 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분명 개혁으로 안정성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조항 하나 넣자는데 반대를 하는걸까.

그래도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

#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번듯한 직장 찾고 사랑을 찾고자 하는 꿈.  
나 닮은 자식 하나 낳아 기르고 싶은 꿈.  
그런 자식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꿈.  
내 자식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꿈.

‘나’의 꿈이자, ‘부모님’의 꿈이고, ‘자녀’의 꿈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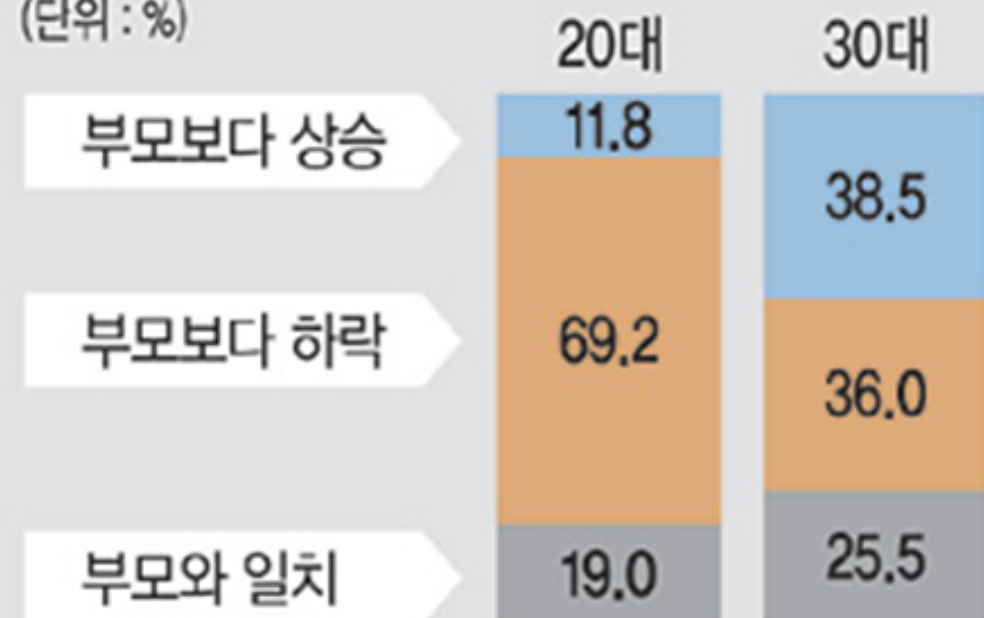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는 좋은 자녀이자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괜찮다!

## “가만히 있으라.”

###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성

(단위 : %)



# 누가 가장 무책임한가?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적: 300 인	재석: 277 인	찬성: 193 인	반대: 40 인	기권: 44 인
●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고동진 ● 고민정 ● 곡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남근 ● 김대식 ● 김도읍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진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희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진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민	●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 김창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호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오경종 ● 민병덕 ● 박대술 ● 박익훈 ● 박민규 ● 박상용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승권 ● 박형수 ● 박홍근 ● 백준영	● 배현진 ● 백종현 ● 부승찬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 송인석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영부남 ● 영태영 ● 오기형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성범 ● 유영환 ● 유용권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욱 ● 윤한홍	● 윤호중 ● 이광희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희 ● 이성권 ● 이양수 ● 이연선 ● 이정운 ● 이종배
● 이종욱 ● 이철규 ● 이해식 ● 이원환 ● 임광현 ●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 장동원 ● 장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경식 ● 정태호 ● 정희용 ● 조경태 ● 조백승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선미 ● 진종오 ● 채현일 ● 최기상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병도 ● 한지아 ● 허영 ● 황명선 ● 황희	

모수 먼저 고치고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미 구조를 박살내고 모수를 고쳤다.

그래도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

# 국민연금 개정안 가결... 용혜인 의원 반대 "소득 보장 보다 재정 안정에 초점"

국회 공청회...소득보장론자 "적정소득 보장, 공론화서도 지지...소득대체율 50%로"

이 구조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재정 안정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060년에는 적립금이 약 4500조 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런 결과는 청년에게 매우 유리하고 세대 간 형평성도 개선시킨다.



그래도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

그들은 말한다.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언제까지?

**The End**